

<동정자료>

김현미 장관, “기계산업 혁신 키워드는 자율화·협력화” ‘제3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서 유공자 표창·기계설비인 격려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7월 12일(목) 서울 63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제3회 기계설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기계설비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기계설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기계설비산업: 급배수·급탕설비, 난방 설비, 위생설비, 공기조화설비, 가스설비, 자동제어설비 등에 대한 설계·시공, 유지 및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 산업

○ 주요 기계설비단체의 연합회인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는 기계설비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위해 2016년부터 7월 16일을 “기계설비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해왔다.

□ 김현미 장관은 기계설비산업 공로자*를 포상한 후, 축사를 통해 “지난 4월 43만 기계설비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기계설비법」이 제정된 것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건설산업에서 기계설비산업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 국토부장관 표창 15명

○ 더불어 “정부도 법 시행과정에서 기계설비산업 발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한,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건설산업 혁신방안’에 기계설비인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건설산업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핵심 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2018. 7. 12.

국토교통부 대변인

□ **개최목적**

- 「기계설비의 날」 행사를 통해 기계설비분야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및 기계설비 산업의 도약과 발전을 도모

*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의 설립 30주년('16.7.15.)을 맞아, 우리부 후원으로 「제1회 기계설비의 날」을 제정·운영((건설인력기재과-1845('16.5.31.)호-장관 방침)

□ **행사계획**

- 時/所 : '18.7.12(목) 11:00~13:00, 63 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서울 여의도)

- 주 최 :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주요단체 별 현황

단체명	대한기계설비 건설협회	대한설비 공학회	한국냉동공조 산업협회	한국설비 기술협회	한국설비기술사 설계협회
분야	시공	학술	제조	기술	설계
회원	7,713개사	법인 200개사 개인 7,855명	125개사	법인 180개사 개인 2,600명	엔지니어링 299개사 기술사 291개사
설립연도	1989	1971	1975	1967	1973
단체장	백종윤	홍희기	노환용	김태철	조춘식

- 주요 참석자 : 장관님, 국회의원(조정식, 박덕흠, 윤관석, 정동영, 이원욱, 윤후덕, 윤영일),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대한설비공학회장, 한국설비기술협회장,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장, 한국설비기술사설계협회장 등 약 600여명

- 행사내용 : 기념식 행사, 포상·치사 등

* 장관표창 15명

장관 표창(15명)
김용찬(고려대 교수), 이대영(한국과학기술연구원), 김영호(씨엔티코퍼레이션), 박미정(비드 이앤씨기술사사무소 대표), 송주창(창득설비 대표), 전광표(한솔엔지니어링 대표), 전치권(아이스에스 대표), 김철영(유천씨모텍 대표), 윤희국(서울주택도시공사 부장), 장가익(토지주택공사 처장), 김재현(오텍캐리어 이사), 김대식(에이피 상무), 남상진(설화엔지니어링 대표), 류형규(기계설비산업연구원 실장), 김용성(두산건설 부장)